

# 21세기 비전 ; 품질과 기술의 세계화에 선두

## Electro-21 Project 참여, 성과 가시화



**李 正 勳**

### 두산전자(주) 사장

- ▲ 44년 서울출생 ▲ 66년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 두산산업(주)뉴욕지사장 ▲ 91년 두산전자 전무
- ▲ 94년~현재 두산전자(주)사장

두산전자는 국내 동박적층판 산업에 처음으로 진출하였고 현재 70%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동박적층판 업계에 선두주자로, 두산전자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동박적층판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두산전자의 역사와 동박적층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동박적층판(Copper Clad Laminate; CCL)은 전자기기 내부의 전자부품을 배열하는 판(板)으로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자소재입니다.

인쇄회로원판 또는 Copper Clad Laminate를 줄인 CCL로 흔히 불립니다.

두산전자는 1974년 전자부품의 국산화와 수입대체를 목표로 동박적층판 생산을 위해 동양맥주와 미국의 원판 Maker인 OAK와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제품의 동박적층판 시장점유율이 100% 가까이 되어서 국내업체의 시장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시장진입 단계에 일본업체의 덤핑공세로 인해 한때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이품도 겪었지만 구미공장에서의 이전, 신제

품의 개발, 품질향상 노력 등 적극적인 경영을 펼친 결과 Color TV의 시판과 더불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서게 되었고, 87년에는 자체 연구소를, 88년에는 충북 증평에 제2공장을 세울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히 헤쳐나온 두산전자의 저력이 느껴지는군요.

사장님은 지난해 5월 두산전자의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이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구상 또는 추진하고 계신 사업전략은 무엇입니까?

당사는 품질과 기술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도 명실공히 세계 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1세기 비전을 “품질과 기술의 World Leader”로 정하고 세계화와 사업 다각화를 두 축으로 하여 여러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홍콩, 유럽, 미국에 4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1년경에는 해외지사를 7개소로 늘리고 해외 현지공장을 세워

판매, 생산거점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현재 20%에 불과한 해외사업을 5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다각화 전략을 통해 신규사업의 비중을 역시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자경기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데, 사장님이 보시는 경기전망은 어떠하며, 이러한 호기에 대응하는 두산전자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최근의 전자경기가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CAPA 증설을 통해 시장수요에 맞추어나가고, 중기적으로 해외공장의 건설, 해외 판매거점의 확보 등을 통해 세계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해외시장에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최근 업계의 설비증설 추세를 볼때 내년 또는 후년부터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국내 동박적층판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고 국내 업체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시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로의 진출은 국내시장에서의 확고한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지요.

국내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만, 품질에서의 우위의 다품종 생산, 납기, Service의 향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품질보증 활동 등을 통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향후 시장을 주도할 제품은 어떠한 것이며 두산전자의 연구개발 동향은 어떠합니까?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와 복합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현상이고 최근에는 안전성과 환경위해성이 중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고밀도와 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제품, 전기안전성이 뛰어난 제품,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 등의 개발에 주력하여 Silver Through Hole 제품, High CTI 제품, Green Laminate 등의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현재 생산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상산업부와 Electro-21 Project에도 참여하여 초밀도 박판 PCB 8 원판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며 곧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장님은 바쁘신 와중에서도 지난해 서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는 등 만학의 열성을 보이셨는데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경영철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장님의 경영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만족이고 둘째는 프로정신입니다.

고객만족은 “고객은 스승”이라는 말로 회사 경영이념중의 하나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고객존중, 고객중심의 활동을 추구하며 고객으로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정신은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일에 프로답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가지 정신은 판매, 생산, 개발 등 당사의 모든 경영활동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여가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바쁜 스케줄 때문에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기는 힘이 듭니다만 골프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필드에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운동삼아 연습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감상을 취미로 삼고 있어서 가끔 잠이 나면 음악감상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 건의 또는 부탁 말씀이 있다면?

오늘날 당사가 이만큼이나 성장하는데 정부의 도움이 많았고 정부의 활동이 전자산업의 발전에도 상당히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행정규제완화 등의 개혁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굳이 바램이 있다면 현재 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나 행정규제쇄신(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정책들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자진흥회에 대한 사장의 고견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현재 세계 6위규모로 성장하기까지 전자진흥회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는 역할과 국내 전자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사업을 대표하는 대정부 창구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